

# 현대중국어의 상황상 연구\*

李恩洙\*\*

## < 목 차 >

1. 관점상과 상황상의 보편성과 개별성
  - 1.1 관점상
  - 1.2 관점상과 상황상의 혼동
  - 1.3 상황상
2. 중국어의 관점상
  - 2.1 완료상
  - 2.2 지속상·진행상과 경험상
3. 중국어의 상황상
  - 3.1 상적 의미자질 검토
  - 3.2 중국어의 상황 유형
4. 결론

## 1. 관점상과 상황상의 보편성과 개별성

### 1.1 관점상(viewpoint aspect)

김성화(2003)에 따르면, '상'이란 용어가 문법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1827년 출판된 그레치(N.I.Grech)의 러시아 문법에서부터였다. 그는 러시아어의 단어 'vid'(보다)를 사용했는데, 이는 후에 불어에서 'aspect'(상)로 번역되었다. 다른 슬라브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어에는 동사가 두 가지 형태적인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A00517).

\*\* 圓光大學校 英中語文學部 助教授.

대립과 그로 인한 시간적 의미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상황을 조감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완료(perfective)와 비완료(imperfective)로 표현되었다. 슬라브어의 전통 문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의미적인 대립에 대해 오랜 연구가 있어왔으며, 이후 '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여러 비슬라브어에도 적용되어 개별 언어학적 연구대상에서 일반언어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상의 문제를 연구한 Comrie(1976)는 '상'<sup>1)</sup>이란 상황(situation)의 내적인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중 '완료상'은 어떤 상황을 외적으로 보아 그 내적 시간 구성을 구별하지 않으며, '비완료상'은 어떤 상황을 내적으로 보아 그 내적 시간 구성에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Comrie는 완료상과 비완료상의 차이가 해당되는 상황 자체의 객관적인 차이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I stood there for an hour'라는 문장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면 'ja stojal tam čas'나 'ja postojal tam čas', 'ja prostojal tam čas'로 표현이 가능한데, 세 문장은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나 첫 번째 문장은 비완료상으로 해석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완료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은 같은 완료상이라 해도 각각 주관적으로 짧은 기간과 주관적으로 긴 기간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불어에서도 'il régna trente ans'와 'il régnait trente ans'는 모두 'He reigned for thirty years'의 의미이지만 전자에서는 동사형태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Past Definite'으로 30년의 기간을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 처리하여 영어의 'He had a reign of thirty years'에 상당하지만, 후자는 30년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가 실제로 통치했음을 나타내는데 이 문장은 그의 통치 기간 내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을 언급할 때의 배경설명으로 쓰이기에 적당하다고 한다. 물론 모든 개별 상황들이 완료상과 비완료상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위의 두 예에서 보는 것처럼 '상'은 '상황의 객관적인 차이'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 그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방법'으

1) 물론 여기에서의 '상'이란 Smith(1991)가 상을 '관점상'(viewpoint aspect)과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 구분하였을 때의 '관점상'을 나타낸다.

로 이해될 수 있다.

슬라브어에서 시작된 ‘상’(또는 관점상)에 대한 연구가 비슬라브어로 확대되면서 연구자들은 슬라브어에서의 완료상이 갖는 시간적 의미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슬라브어에서 완료상이 갖는 대표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을 바깥에서 보아 그 내적인 시간 구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완료상의 의미는 위의 러시아어나 불어의 예에서처럼 어느 동일한 상황을 완료상과 비완료상으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성화(2003)는 이러한 전체성(totality)<sup>2)</sup>이 슬라브어 화자의 직관에는 쉽게 이해되지만 비슬라브어 화자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상은 일반적인 문법 범주일 수 있지만 개별언어에 따라 상의 형태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 1.2 관점상과 상황상의 혼동

그런데 이러한 완료상의 ‘전체성’에 대한 오해는 중국어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Li & Thompson(1981)은 ‘완료상’이 어떤 상황을 그 내부 시간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전체 상황을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파악한다고 보았다. 즉 슬라브어의 완료상에서 나타나는 ‘전체성’을 중국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은수(2008)는 이러한 중국어 완료상의 ‘전체성’에 대한 논의는 ‘관점상’과

- 
- 2) 김성화(2003)는 ‘totality’를 전일성(全一性)으로 번역하였으나, 필자는 완료상이 어떤 상황을 내적 시간 구분이 없는 하나의 전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체성’으로 번역하였다.  
 3) 그는 국어의 경우 전체성을 나타내는 ‘상’ 형태가 없으므로 국어에서 ‘상’ 개념을 설정하는데 ‘전체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4)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슬라브어의 ‘완료상’과 일부 유사한 영어의 ‘현재완료’(present perfect)는 ‘시제’인지 ‘상’인지 또는 ‘시제와 상’의 결합인지 논의가 분분하며, 그 의미도 ‘전체성’과는 달리 ‘결과’, ‘경험’, ‘지속상황’, ‘근접과거’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상황상’의 혼동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보았다. Li & Thompson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의 ‘완료상’ 표지인 ‘了’이 사용되면 어떤 사건을 전체로서 파악하게 되고, 그 사건이 전체로서 파악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안한 사건을 제한하는 네 가지 방식이다.

(1) 사건을 제한하는 네 가지 방식

A. 양화된 사건인 경우

他睡了三個鐘頭。

B. 한정적이거나 특정한 사건

你想出來了那個字。

C. 동사의 의미 때문에 본래 제한적인 경우

我忘了他的地址。

D. 연속된 사건 중 첫 번째인 경우

有了這個日光燈，廚房就亮多了。

하지만 위의 제시된 상황과 그 예들은 중국어에서 완료상으로만 나타낼 수 있을 뿐 비완료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상황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완료상 표지가 쓰여 전체로서 파악되려면 그 상황 자체가 원래 제한된 사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전체성’이라는 상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완료상’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어휘 부분이 갖는 시간 의미, 즉 ‘상황상’이 되고 만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어의 완료상 표지 ‘了’가 상황을 전체로서 파악하게 하는 ‘전체성’을 나타낸다는 데 회의적이다. 즉 김성화(2003)가 국어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완료상 개념에서도 ‘전체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1.3 상황상

앞서 본 것처럼 상에 관한 논의에서 관점상은 상황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흔히 혼동하기 쉽다. Smith(1991)에 따르면 문장이 나타내는 상적 정보는 '관점상'(viewpoint aspect)과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관점상은 동사의 형태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법화된 상을 말하며, 상황상이란 상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즉 어휘 내용이 갖는 시간적 특성에 따라 상황을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상황상에 관한 연구는 Aristoteles가 동사를 상태(state), 활동(energeia), 종결(kinesis)로 분류한 데서 시작되었으며,<sup>5)</sup> 이러한 동사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먼저 등장한 것은 '동작태'(Aktionsart)였다. 하지만 Klein(1994)에 따르면 Agrell(1908)이 소개한 '동사의 동작태'라는 개념은 단지 동사의 어휘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동사의 논항이나 부사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이 개념이 동사에 접사형태로 부가되어 기본 동사의 의미를 부수적으로 수식하는 것만을 지칭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동사만으로 한정되었던 동사 분류는 이후로 점차 동사 외에 기타 성분으로 확대되어갔다.

Aristoteles의 3분법을 4분법으로 확대하며 크게 주목받은 것은 Vendler(1967)였다. 그는 동사의 상적 유형을 'state'(상태), 'activity'(동작), 'accomplishment'(성취), 'achievement'(달성)로 구분하여 이후의 연구에 기반을 제공하였다. Vendler의 4분법을 다시 한 번 발전시킨 이는 Smith(1991)의 5분법이었다. 그는 이전의 4분법에 'Semelfactive'(순간)를 추가했는데 이는 슬라브언어학에서 'kašljanut'(cough)와 같은 동사의 상적 특징을 지칭하던 용어를 가져온 것이다.<sup>6)</sup> 그의 5분법은 다음과 같다.

5) 楊素英(2000) 참조.

6) 슬라브언어학에서는 cough와 같은 동사의 반복적 동작을 나타낼 때도 역시 'Semelfactive'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Comrie(1976)는 이런 동사의 일회적인 쓰임과 반복적인 쓰임을 구분하여 일회적인 쓰임에만 'Semelfactiv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Smith는

## (2) Smith의 상황상 분류

	정태성	지속성	종결성
상태(State)	[+]	[+]	-
동작(Activity)	[-]	[+]	[-]
성취(Accomplishment)	[-]	[+]	[+]
순간(Semelfactive)	[-]	[-]	[-]
달성(Achievement)	[-]	[-]	[+]

또한 Smith는 위와 같이 세 개의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 불어, 노어, 중국어 등에도 위의 다섯 가지 상황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상황상이 어떤 언어에나 보편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앞서 '상'(또는 '관점상')에 관한 논의에서 '관점상' 즉 '완료상'과 '비완료상'의 형태나 의미가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인 바 있다. 그렇다면 반면 상황상은 어떤 언어에나 동일하게 같은 부류로 나뉘어 존재한다는 것일까. 물론 그 개념적 의미나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가능성만을 생각해볼 때, 위의 상황상 분류는 어느 언어에나 동일하게 존재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상황상의 분류 역시 언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황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관점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ai(1984)는 영어의 '성취'(achievement) 동사가 중국어에서는 결과보어로 나타나지만, 둘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영어의 경우 성취 동사가 동작과 결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결과만을 나타냄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이때 검증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관점상의 부가로 인한 문법성의 차이이다.

(3) 我在學中文。 / \*我在學會中文。

I am studying Chinese. / I am learning Chinese.

(4) 我在殺張三。 / \*我在殺死張三。

I am killing John.

슬라브언어학에서 본래 쓰이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새로운 상황 유형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5) 我在畫一張畫。 / \*我在畫完一張畫。

I am painting a picture. / I am finishing the picture.

동사나 상황상의 분류는 위에서 언급한 상적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러한 상적 의미자질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것은 주로 관점상 표지의 부가 여부와 그로 인한 의미차이이다. 이러한 사실은 Vendler(1967) 이래로 Smith(1991)나 중국어의 상황상에 관한 陳平(1988)이나 郭銳(1993), Xiao & McEnery(2004) 등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관점상의 의미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상황상이 분류된다면 상황상의 분류 역시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Smith(1991)의 상황상 5분법이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중국어에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또한 중국어의 상황상에 대한 연구 역시 다시 상황상 연구의 기반이 되는 관점상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2. 중국어의 관점상

### 2.1 완료상

Li & Thompson(1981)은 Comrie(1976)를 기반으로 중국어의 관점상 역시 완료상과 비완료상의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상 표지로는 ‘了’, 비완료상 표지로는 지속을 나타내는 ‘在’와 ‘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완료상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전체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슬라브어의 완료상이 나타내는 ‘전체성’(totality)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국어의 완료상 개념에서 ‘전체성’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중국어

의 완료상 개념에도 '전체성'을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제 앞서 살펴본 예문을 통해 중국어의 완료상이 '전체성'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자. 아래 예문은 모두 Li & Thompson(1981)이 제시한 것이다.

- (6) 他今天買了很多書。  
그는 오늘 책을 많이 샀다.
- (7) 牆上掛了一幅畫。  
벽에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다.
- (8) 有了這個日光燈, 廚房就亮多了。  
이 형광등이 생겨서 부엌이 훨씬 밝아졌다.

위의 예문 가운데 (6)은 유일하게 완료상 표지 '了'가 '전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예문들은 '전체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먼저 (7)의 일반적인 의미는 '벽에 그림 한 폭을 거는 동작이 있었고 그 동작을 마쳤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벽에 그림을 거는 동작'은 단지 과거에 있었음을 전제할 뿐, 문장이 전달하려는 의미는 '현재 그림이 벽에 걸려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了'가 '전체성'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8)에서는 '형광등이 생긴' 상황이 어떻게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전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了가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더 많은 문장들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은수(2008)에서 지적했듯이 그렇다 해도 그것은 '了'의 기능이 아니라 '了'가 부가되기 이전의 그 상황 자체의 특징으로 보인다.<sup>7)</sup> 이렇게 볼 때 중국어의 완료상 표지 '了'의 상적 의미는 Li & Thompson이 주장했던 '전체성'과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성'이 '了'의 핵심적인 상적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7) 이은수(2008)에서는 '전체성'을 언어 보편적인 '완료상'의 고유한 의미로 보아서 '了'가 전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了'를 '완료상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국어의 상 개념에 '전체성'이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도 '완료상'은 있으나 단지 그 상적 의미가 '전체성'이 아닌 다른 의미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은수(2004)는 Shi(1991)의 논의를 바탕으로 ‘了’의 상적 의미를 ‘선시성’으로 설명하였다. 예문을 통해 ‘선시성’의 의미를 살펴보자.

- (9) 他只看了一本書。  
그는 단지 책 한 권만을 보았다.
- (10) 他寫了一封信。  
그는 편지 한 통을 썼다.
- (11) 他知道了這件事。  
그는 이 일을 알게 되었다.
- (12) 你應該趁此機會去外國賺點錢, 有了錢, 什么事情都好辦。  
너는 이번 기회에 외국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한다.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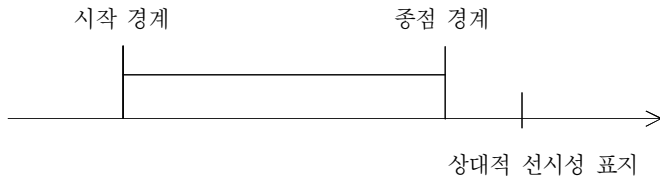
(11), (12)는 상황의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13), (14)는 상황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황상과 관점상의 결합으로 서로 다른 상적 의미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작 경계’와 ‘종점 경계’가 모두 있는 상황에 ‘了’가 부가될 때 ‘완료’의 의미가 나타나고 ‘시작 경계’만 있는 상황에 ‘了’가 부가되면 ‘시작’의 의미가 나타난다.<sup>8)</sup>

(13)에서처럼 ‘了’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선시성 표지’(또는 ‘상대적 과거 표지’)이므로, 단지 어떤 상황이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음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시제-언어에서처럼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어떤 특정 시점(일반적으로 현재 시점) 이전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에서 (12)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了’는 ‘경계’(시작 경계나 종점 경계)를 포함한 상황에 대해서만 ‘상대적 선시성’을 나타낸다.

8) 이와 유사하나 보다 폭넓은 ‘경계’의 개념은 Huang & Davis(1989)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3) 상황 유형에 따른 ‘了’의 상적 의미 차이

a. 경계성 상황



b. 비경계성 상황



만약 ‘시작 경계’나 ‘종점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정태적 상황을 상정한다면, 중국어에서는 이런 상황에 완료상 표지를 부가하여 ‘상대적 선시성(과거)’으로 표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어 예문 (14)는 ‘즐겁기 시작한’ 상황이나 ‘즐거움을 마치는’ 상황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과거에 ‘즐거웠던’ 정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현재 시점 이전의 상황이지만 ‘시작’이나 ‘종점’은 염두에 두지 않는 과거의 ‘상태’만을 나타내므로 중국어에서는 ‘了’를 부가할 수 없는 것이다.<sup>9)</sup>

(14) 어제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사람들이 모두 즐거웠다.

昨天我們開了個晚會，大家都很高興(\*了)。

(15) 그때 나는 그를 만나고 싶었다.

那時我想(\*了)見他。

(16) 예전에 춘향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다.

從前有(\*了)一個叫春香的姑娘。

물론 Shi가 주장하듯이 모든 상황은 ‘시작’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13)의

9) 예문 (14)-(16)은 모해연(1999)에서 인용.

경계성 상황과 비경계성 상황은 ‘중점’ 경계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형용사나 상태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상황은 ‘시작’ 경계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了’를 부가하지 못하며, (11), (12)처럼 ‘시작’ 경계가 부각될 때 ‘了’의 부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때 중국어의 완료상은 슬라브어에서와 같은 ‘진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 선시성’을 나타내며 그것도 해당 상황이 ‘시작’ 경계나 ‘중점’ 경계를 가졌을 때에만 그 상황이 상대적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완료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어의 상황상에서는 ‘경계’의 유무가 다른 언어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상황상이 시작 경계는 가지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중점경계는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2 지속상·진행상과 경험상

Li & Thompson(1991)은 비완료상의 지속상 표지(imperfective durative marker)로 ‘在’와 ‘着’을 들고 있다. 물론 이들 역시 동사 유형에 따라 공기할 수 있는 표지가 달라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동작성 동사’(activity verb)만이 ‘在’가 부가될 수 있고, ‘자세 동사’(verb of posture)에는 ‘着’가 부가되며, 한편 으로는 동작을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의 경우에는 ‘동작성’을 나타낼 때 ‘在’를, ‘동작과 관련된 상태’를 나타낼 때 ‘着’를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 張三在打李四。 / 李四在解釋文法。

장삼이 이사를 때리고 있다 / 이사는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18) 他在房子裏坐着。 / 車子在外面停着。

그는 집안에 앉아 있다 / 차가 밖에 멈춰 서 있다.

- (19) a. 他在穿皮鞋。  
그는 구두를 신는 중이다.
- b. 他穿着皮鞋。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신고 있는 상태다)

또 ‘着’를 포함한 복문에서 ‘着’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지속적인 배경이 됨을 나타낸다.

- (20) 他哭着跑回家去了。/ 那張畫得蹬着椅子掛。  
그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 돌아갔다./ 그 그림은 의자를 딛고 걸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중국어에서 두 지속상 표지는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을 구분하여 표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상의 차이는 상황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상황상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상의 차이로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상황상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상 표지로 ‘경험상’을 나타내는 ‘過’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상의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험상은 중국어 상 표지 가운데 가장 ‘시제’ 표지와 가까워서, ‘동작성’을 포함하는 동사(동작, 성취, 달성 등)는 물론 일부 ‘상태’ 동사에까지도 부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1) 他愛過黃小姐。/ 我也年輕過。  
그는 황양을 사랑한 적이 있다./ 나도 젊었던 적이 있다.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성이 아주 강한 동사(以爲, 等於 등)와 어떤 상태가 시작되면 의미상 그 상태가 종결될 수 없는 동사(認識, 熟悉 등), 의미상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과거에는 존재함’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동사(老, 死 등)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過’는 상황상의 분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중국어의 상황상

#### 3.1 상적 의미자질 검토

본고에서는 한 언어에서 상황유형의 분류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관점상과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공기 여부에 차이를 보이거나 상적 의미 차이를 분명히 보일 때만이 그 분류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황상의 분류 근거가 되는 상적 의미자질 역시 상황상의 구분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은 배제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의미자질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흔히 언급되는 의미자질로는 Smith(1991)의 상황상 5분법이나 陳平(1988)의 5분법 등에서 분류 기준이 되고 있는 ‘정태성’[±static],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이 있다.

(2) Smith의 상황상 분류

	Static	Durative	Telic
상태(State)	[+]	[+]	-
동작(Activity)	[-]	[+]	[-]
성취(Accomplishment)	[-]	[+]	[+]
순간(Semelfactive)	[-]	[-]	[-]
달성(Achievement)	[-]	[-]	[+]

먼저 ‘정태성’[static]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정태성’은 상황을 ‘정태적 상황’과 ‘동태적 상황’, 다시 말해 ‘상태’(state)와 그 외의 네 가지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인 ‘사건’(event)으로 구별하는데, ‘상태’와 ‘사건’은 특별한 테스트 없이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속성’(durative)은 어떤 상황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므로, 순간적인 동작(knock, cough 등)을 나타내는 ‘순간’(semelfactive)과 의미상 예비단계(preliminary stage)가 전제되지만 어휘의 의미 자체는 역시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상황(예를 들어 reach the top, break 등)인 ‘달성’(achievement)만이 마이너스 자질을 갖고, 상태(state), 동작(activity), 성취(accomplishment)는 플러스 자질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성’은 개념적인 의미자질일 뿐, 실제로는 관점상과 관련하여 상황상을 의미 있게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태’(state)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태’ 상황은 개념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것, 즉 ‘시작점’에서 ‘종결점’까지 일정한 거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상태 상황은 보통 어떠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만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에도 상태 상황(have, know 등)은 ‘ing’를 부가하여 지속을 나타낼 수 없다.

(22) I have a car./ \*I am having a car.  
난 차 한 대가 있다.

(23) The answer remains the same: no!/\*The answer is remaining the same: no!  
대답은 여전히 ‘no’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중국어에서는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시량보어’도 ‘在’나 ‘着’와 공기할 수 없고 오히려 완료상 표지인 ‘了’와 공기한다.<sup>10)</sup>

10) 영어의 경우에는 ‘ing’형이 ‘지속 기간’과 함께 쓰일 수도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도 문장의 앞에서 시간 배경으로서의 지속구간을 나타낼 경우에는 ‘在’와 공기가 가능하다。(昨天七點到九點我們在打掃大禮堂。) 그러나 문장의 상적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동사 뒤에 ‘시량보어’의 형태로 지속 구간이 있을 때이므로 이 경우에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 (24) \*他在跑兩個小時。 / 他跑了兩個小時。  
그는 두 시간 동안 달렸다.

따라서 영어나 중국어에서 진행상, 또는 지속상 표지와 의 공기 여부를 통해 볼 때, (2)에서 상태(state) 상황은 오히려 중국어에서 진행상 자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언어사실에 보다 더 부합되는 것인지는 모른다. 다시 말해 '지속성' 자질은 개념적인 '지속성'이 아니라 개별 언어에서 관점상과의 결합으로 인해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로 바뀌어야만 해당 언어의 상황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결성'[telic]은 사건을 '종결 사건'(telic event)과 '비종결 사건'(atelic event)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종결 사건은 어떤 목표를 향해 진행되며, 목표에 도달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Smith는 종결 사건의 이 목표, 즉 '사건'에 내재적인 이 종결점을 '자연종결점'(natural final point)이라 했다. 즉 '종결 사건'은 '자연종결점'을 갖고 '비종결 사건'은 '임의종결점'(arbitrary final point)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건'(event) 중에서 '성취'(accomplishment)와 '달성'(achievement) 상황은 자연종결점을 갖는 종결적 상황으로, '동작'(activity)과 '순간'(semelfactive) 상황은 임의종결점을 갖는 비종결적 상황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순간'(semelfactive) 상황의 [-telic] 자질은 의문시된다. '순간' 상황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겹치는 어느 순간 동작이 시작되었다가 그 동작이 지체 없이 바로 종결되는 그러한 상황(cough, knock 등)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 내에는 '자연종결점'이 포함되므로 '종결적'(telic)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Smith는 '순간' 상황에 '종결점'이 내재함은 인정하면서도 (위에 언급한 Smith의 정의에서처럼) '자연종결점'은 '상태 변화'를 동반해야 하는데 '순간'에 상태 변화를 포함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telic] 자질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에 내재하는 '자연종결점'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순간' 상황 역시 [+telic] 자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 3.2 중국어의 상황 유형

중국어 상황상에 관한 연구 중 鄧守信(1986)은 Vendler(1967)의 4분법을 중국어에 그대로 적용시켰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중국어의 언어사실에 기초하여 기존의 4분법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먼저 Tai(1984)의 성과를 검토해보자.

그는 중국어에서 '성취'(accomplishment)와 '달성'(achievement)의 차이가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5) a. 我昨天畫了一張畫, 可是沒畫完。  
 b. ? I painted a picture yesterday, but I didn't finish it.
- (26) a. 張三殺了李四兩次, 李四都沒死。  
 b. \* John killed Peter twice, but Peter didn't die.

영어에서 'to write a letter'와 'kill'은 모두 '성취'(accomplishment) 상황이며, 성취 상황은 영어에서 과거나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면 동작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5)b와 (26)b는 부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이미 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말하고는 다시 그 목표 달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어의 예 (25)a, (26)b에서는 '완료상'을 부가하였음에도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어의 '성취' 상황은 동작과 함께 목표 달성까지 나타낼 수 있으나,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동작만 나타낼 뿐 목표 달성은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어에도 동작과 함께 목표 달성을 표시하는 '결과보어' 형태가 있다. (\*我昨天畫完了一張畫, 可是沒畫完。 / \*張三殺死了李四兩次, 李四都沒死。) 그러나 이 경우는 반대로 목표 달성만을 나타낼 뿐 동작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 (27) 我在學中文。 / \*我在學會中文。  
 (28) 我在殺張三。 / \*我在殺死張三。  
 (29) 我在畫一張畫。 / \*我在畫完一張畫。

이를 근거로 Tai는 영어의 '성취'(accomplishment)가 동작과 결과의 두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반해 중국어 번역 대당자는 동작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해석하게 되므로, 중국어에서는 '성취' 상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중국어 상황상을 '상태'(state), '동작'(activity), '결과'(result)로 구분하였다. 즉 '성취'를 없애고 '달성'(achievement)은 그 목표 달성을 강조하여 '결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본고는 Tai의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중국어에는 '성취' 상황이 없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陳平(1988)의 주요한 성과는 '複變'(complex change)의 발견이다. 그가 제시한 '複變'의 예는 대체로 '동결식'이나 '동결식'에서 발전한 어휘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 자질은 [-static], [-durative], [+telic]이므로, (2)에서는 '달성'(achievement)에 해당된다. 그러나 '複變'이 '달성'과 다른 점은 '결과'에만 의미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표시하므로 '在'를 부가하여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複變'의 발견이 중요한 성과임을 인정하며, 다만 '在'를 부가하여 계속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의 의미자질은 '+'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 (30) 這批人正在成爲我們所的業務骨幹。  
 이들은 지금 우리 연구소의 핵심요원이 되어가고 있다.  
 (31) 兩國關係在不斷改善。  
 양국 간의 관계는 무단히 개선되고 있다.  
 (32) 他的病情正在好轉。  
 그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

楊素英(2000)의 중요한 발견은 '순간'(semelfactive)과 '동작'(activity)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2)에서 의미자질로 볼 때 양자는 [ $\pm$ durative]의 자

질에서 전자는 -, 후자는 +로 다를 뿐이다. 그는 [+時限]의 의미자질을 도입하여 이 양자를 새로이 구분하고 있다. (즉 '순간'은 [+時限], '동작'은 [-時限]으로 구별하였다.) 필자는 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침'이나 '노크'하는 상황은 다른 '동작'(activity)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작'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기술할 때는 오히려 '1회성의 상황'보다 '반복하여 계속되는' 상황이 보다 일반적이며, 따라서 '지속 시간'을 부가할 수도 있고 '在'를 부가하여 계속됨을 나타낼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동작' 상황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종결성'[telic] 자질에 관해서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1회성' 상황으로만 본다면 물론 내재적인 '자연종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작'(activity)과는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반복하여 계속되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다른 한편으로 '1회성'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동작' 상황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가하여 '종결점'을 추가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時限]의 의미자질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durative] 자질을 이용해도 역시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질을 이용한다면 '순간'은 [+durative]의 의미자질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순간'(semelfactive) 역시 '동작'과 동일하게 [+durative]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크'나 '기침'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상황으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1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이나 횟수를 나타내는 구를 부가하게 되어, 마치 '동작' 상황에 시간이나 횟수 의미의 구를 부가하여 '종결점'을 나타낸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Xiao & McEnery(2004)는 새로운 의미자질인 '경계성'([±Bounded])과 '결과'([±Result])를 추가하여 다섯 개의 의미 자질을 통해 상황상을 6분하였다. 그런데 이 중 [+결과]는 '성취'(accomplishment)와 '달성'(achievement)의 구분을 위해 도입한 것이고, [+경계성]은 楊素英(2000)의 [+時限]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순간' 상황이 시간적으로 경계를 갖는 것으로도 갖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Tai(1984)와 같이 ‘성취’와 ‘달성’의 구분이 중국어에는 없다고 보며, ‘순간’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작’에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두 자질은 도입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어의 상황상을 기존의 세 가지 의미자질을 통해 네 가지 상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33) 중국어의 상황 유형

	Dynamic	Durative	Telic
상태(State)	[-]	[-]	[-]
동작(Activity) (순간(Semelfactive) 포함)	[+]	[+]	[-]
결과(Result)	[+]	[-]	[+]
점진적 변화(Complex Change)	[+]	[+]	[+]

먼저 의미자질 중에서는 [static]보다 [dynamic]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태’(State) 상황을 [static]이란 의미 자질로 설명하는 것은 동일어의 반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태’ 상황에서 ‘지속성’(durative) 자질은 마이너스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 필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상황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 구간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어의 ‘상태’ 상황에는 ‘在’의 부가도 불가능하고, 지속 구간을 덧붙이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만약 지속 구간의 부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것은 기본 층위의 상황 유형이 아니라 ‘파생 층위의 상황 유형’<sup>11)</sup>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다음으로 ‘동작’ 상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순간’ 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결과’는 중국어에 ‘성취’와 ‘달성’의 구분이 없다는 Tai(1984)의 논의에서 가

11) ‘derived situation type’은 Smith(1991)의 용어를 가져온 것이다.

저은 것이다. 영어의 '성취'에 해당하는 중국어로의 번역 대상자는 영어에서 '성취' 상황에 '동작'과 '결과'가 모두 포함되는 것과는 달리, '동작'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국어에는 '성취'와 '달성'의 구분이 없으며 '동작'과 구별되는 '결과' 상황만이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변화'(Complex Change)는 陳平(1988)이 발견한 상황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陳平은 이 상황의 의미자질을 [-static], [-durative], [+telic]으로 보고 있지만, 필자는 이 점진적인 변화 상황이 '在'를 수반하여 계속됨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durative]로 보았다.

#### 4. 결론

관점상의 '전체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볼 때 관점상은 언어에 따라 형태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관점상과의 결합 여부 등을 근거로 분류되는 상황상 역시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영어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기존의 상황 분류와는 다른 중국어 상황상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관점상에 관해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어 기존에 상황상 분류에 쓰이던 '의미 자질'들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자들의 상황상 분류 중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하여 새롭게 상황상을 제시해 보았다. 보다 세밀한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필자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어의 상 체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으로 삼고자 한다.

## &lt; 參考文獻 &gt;

- 김성화(2003),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이은수(2004), <현대중국어 상 표지 '了'의 시간 의미>, 《중국언어연구》 19.
- 이은수(2008), <중국어 상황상과 了, 부정사>, 《중국어문논역총간》 23.
- 郭 銳(1993), <漢語動詞的過程結構>, 《中國語文》.
- 鄧守信(1986), <漢語動詞的時間結構>, 《一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毛海燕(1999), <韓國學生'了1'使用上的偏誤分析>, 《중국어문학지》6.
- 楊素英(2000), <當代動貌理論與漢語>, 《語法研究和探索》9.
- 劉月華等(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陳 平(1988),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 Comrie, Bernard(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ang, Lillian Meei-jin and Philip W. Davis(1989), "An Aspectual System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7.
- Klein, Wolfgang(1994), *Time in Language*, Routledge, 신수송 역(2001) 《언어와 시간》, 역락.
-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1981), *Mandarin Chinese -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박종한 등 역(1989),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아카데미.
- Lin, Jo-wang(2003), "Aspectual Selection and Negation in Mandarin Chinese" *Linguistics* 41.
- Smith, Carlota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hi, Ziqiang(1990), "Decomposition of Perfectivity and Inchoativity and the Meaning of the Particle Le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8.95-123.
- Tai, James H.-Y.(1984), "Verbs and Times in Chinese: Vendler's four categories", *CLS*.
- Vendler, Zeno(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Xiao & McEnery(2004), "A corpus-based two-level model of situation aspect", *Journal of Linguistics* 40.

## &lt; Abstract &gt;

In Slavic languages, viewpoint aspect is represented by the contrast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spects, and perfective aspect expresses 'totalit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account for aspects in other languages, and it is often misunderstood that perfective aspect in those languages means 'totality'. Chinese perfective marker 'Le' is also claimed to express 'totality'. However, just as the aspectual meaning in Korean excludes 'totality', so does the aspectual meaning in Chinese. That is, the form and meaning of viewpoint aspect differ from language to language.

It is well-known that viewpoint aspect differs from language to language, but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situation aspect is similar in every language. In fact, Smith(1991) classified situation aspect into five types, applying them to several languages. However, considering that classification of situation aspect is based on viewpoint aspect, I claim that if the latter differs from language to language, then the former will, to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viewpoint aspect before situation aspect.

First of all, the perfective aspect 'Le' does not represent 'totality', but it represents that a situational boundary (a initial boundary or a terminal boundary) existed in the relative past. Also 'Zai' represents the active continuation of situation and 'Zhe' expresses the static situation. Besides, 'Guo' is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because it is not important in the classification of situation aspect.

Considering semantic features on which classification of situation is based, I review previous studies on situation aspect and propose a new situation aspect in Chinese. I classify the situation aspect into four types: state, activity, result and complex change. 'Activity' includes 'semelfactive'. 'Accomplishment' is excluded from consideration, whereas 'complex change' is added to the list.

Key Word: situation aspect, viewpoint aspect, totality, telic, complex chang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9.8.26	2009.9.17	2009.10.5	2009.10.12	2009.10.30